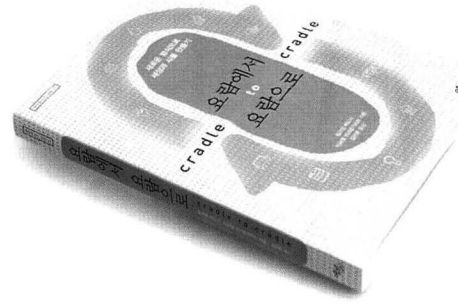


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난 환희, 하지만...

● 에코리브르 《요람에서 요람으로》



《요람에서 요람으로》 윌리엄 맥도너·미하엘 브라운가르트 지음 | 김은령 옮김 | 에코리브르 | 262쪽 | 값 15,000원

유은재 | 에코리브르 편집장

20세기 환경학 최고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침묵의 봄》을 출간한 이후, 환경 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우리는 '바로 이것이다' 하는 책을 발견했다. 《요람에서 요람으로 cradle to cradle》. 원서는 신국판 변형으로 크기도 아담하고 산뜻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만만치 않았다. 환경보전 하면 떠오르는 덜 쓰고 덜 버리지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 바꿔줄 만한 야심작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이 책의 요지는 물건을 사용한 뒤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만들어 그 가치를 고스란히 지닌 채 리사이클(저자들은 기존의 리사이클을 다운사이클이라고 표현한다)되는 물건을 생산하자는 것이다. 책 속에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책 자체였다. 나무를 베어내 만든 종이가 아니라 합성물질로 만든 폴리머로 제작한 것이다. 그야말로 나무도 베지 않고, 또 질이 낮은 종이를 재생해 쓰다가 버려지는 종이 아닌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며 재생이

가능한 종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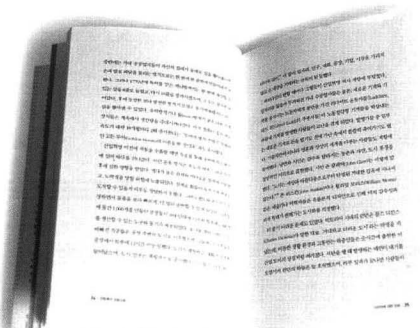
그런데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작업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다. 원서의 느낌을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하던 우리는 여기저기 종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같은 종이를 구할 수 없었고, 결국 원서를 몇 권 구입해 앞에 한 장씩 끼워 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고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입지 회사 몇 곳을 더 찾아 다닌 끝에 포모사에서 이 종이를 구할 수 있었다. 환호를 질렀지만 종이값이 일반 종이의 10배 가까이 되고 보니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에 최대한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결국 1판 1쇄 한정본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쇄도 문제고, 제본도 문제였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서너 배의 제작비와 네다섯 배의 시간을 들여 책이 나왔다.

100퍼센트 만족할 만큼은 못돼도 꽤 괜찮은 책이 되었다. 책 내용의 신선함과 책 자체의 의미로 볼 때 서평도 받을 만하

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모 경제신문과 한 일간지를 제외하면 단신조차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 그러니 책이 나가는 것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책은 거의 나가지 않았고 한 달쯤 지나자 반품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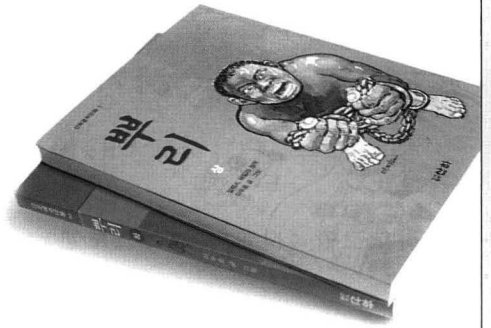
그렇게 이 책은 죽은 책이 되었다. 그런데 가을 학기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쓸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웬일이지. 서점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 물으니 모 대학 리포트 교재로 채택되었다고 했다. 그때 우리는 책이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이지만, 이 책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데 기뻐다. 그리고 연말에는 모 방송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역시 좋은 책이 맞다. 하지만 여전히 잘 나가는 책은 아니다.

극절 많은 이 책이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우선 열 장만 넘겨 보십시오

● 산하 《뿌리》



《뿌리》 알렉스 헤일리 원작 | 이두호 글·그림 | 산하 | 226쪽 | 값 7,800원

김용옥 | 산하출판사 편집부장

처음 산하 기획만화를 만들 때 한국만화상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1권부터 시작했다. 그 중 이두호 선생님 만화가 어린이용이 아니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선생님 연구실에 갔는데 선생님의 많은 작품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것을 봤다. 그 걸작들 속에서 누렁고작은 판형으로 된 《뿌리》를 발견했다. 속으로 소리를 지를 만큼 너무나 좋았다.

나는 그때 텔레비전 화면 가득 절규하던 흑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책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닮은 듯해서 가슴 아프게 읽었다. “그런 《뿌리》를 이두호 선생님이 그렸다니!” 편집자로서는 욕심나는 책이었는데 작은 판형으로는 제대로 된 책을 만들 수 없을 거라 생각하니 아쉬웠다. 그런데 이두호 선생님이 이 만화의 원화가 있다고 했다. 4×6배판보다 120퍼센트로 크게 그린 원화라니. 뛰어난 그림이었다.

《뿌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교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여 다음 장을 넘길 수 없었던 장면들이 참 많았다.

노예 깡깡이장이가 자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바이올린을 깨서 물에 떠내려 보내는 장면. “그 후 깡깡이장이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문장 밑에 날고 있는 새 그림, 그 아래 여백에 처절함이 잘 나타나 있었다. 이 책 속에서 쿤타 키테는 나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돌맹이를 호리병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딸 키지가 팔려가던 날 호리병을 깨뜨린다. 까만 화면 가득 그 파편과 흩어지는 돌맹이들, 키지가 자신의 아들 조지를 들고 달 밑에서 울부짖던 모습도 감동적이었다.

이두호 선생님이 이 만화를 그릴 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소설 《뿌리》를 만화로 그리던 당시 나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가슴 뭉클했던 그 감동과 함께 내 자신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들의 뿌리는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생각에 폭 빠져 ‘뿌리’를 그렸다.”

나는 이 책을 잘 만들어 많은 어린이들이 감동을 받기를 원했다. 내가 ‘뿌리’에서 받은 감동처럼, 그럴 것이라 믿었다.

《뿌리》는 아이들이 열 장만 넘기면 빠져들어 즐겁게 읽을 수 있는데, 미처 그 열 장을 못 넘겨서 귀한 감동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 안타깝다.

이두호 선생님이 만화를 그리던 시절, 그 시대 같은 고민을 했을, 중견작가들의 만화들인 《겨레의 인걸 100인》(윤승운), 《박떡배와 오성과 한음》(박수동), 《공룡나라 우리 엄마》(박수동), 《심술복》(이정문), 《떠돌이 검둥이》(이향원), 《꼬마공룡 티사》(신문수), 《홍길동과 헤딩박》(박수동), 《너 콩쥐 맞아?》(신문수). 이 만화들을 만들 때의 기억은 모두 소중한다.

다시 한 번 《뿌리》를 본다. 여전히 가슴이 찡하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들... 그리고 책들... 모두 우리의 정신적 뿌리를 찾아가는 작업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열 장만 넘겨보기를...



‘강좌’ 라는 분위기, ‘토론’ 이라는 현장감 살린 한국종교의 두 맥

● 바오로딸 《도교와 그리스도교》



《도교와 그리스도교》 김승혜·이강수·김낙필 지음 | 바오로딸 | 440쪽 | 값 11,000원

이민정 | 바오로딸 단행본팀

고려가 불교를, 조선이 유교를 국교로 삼았다고는 하지만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에는 유·불·선 3교가 계속해서 공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19세기 이후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그리스도교까지 가세했다.

한 개인의 종교적 심성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니든 그가 속한 사회의 종교 문화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럽의 그리스도인과는 어느 정도 다른 입장에 있게 된다.

1994년 이후 선불교·유교·무교·이슬람교 등 타종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씨튼 연구원의 종교대화 강좌는 이런 한국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었다. 《도교와 그리스도교》는 그 중에서 1998년에 있었던 다섯 번째 강좌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종교대화의 파트너로 도교를 택한 이유는 도교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문화에 생동감과 여유와 예술적 감각을 불어넣어 주었으므로 한국문화는 물론 동아시아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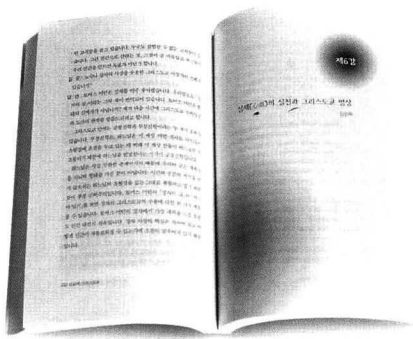
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도교의 사상과 무위자연에 이르는 명상법을 익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 김승혜 교수는 밝힌다. 또한 ‘도도로 회귀하기를 지향하는 인간관’, ‘초월적 가치 안에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관’ 등 닳은 부분이 많으면서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도교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명의 전문가들이 쉬운 말로 풀었다. 도교의 기본 경전인 《노자 도덕경》과 《장자》를 소개하고, 한국 도교와 중국 도교의 역사적 흐름, 그리고 한국문화 안에 나타나는 도교사상 등을 살펴본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교의 주요개념과 대화를 시작한다. 김승혜 교수가 노자의 도도와 하느님 나라(2강), 노자의 성인聖人과 예수(3강), 심재心齋와 그리스도교 명상(6강)을 비교종교학적 관점에서 대화하고 비교한 것은 선례가 없는 귀중한 시도이다.

이 책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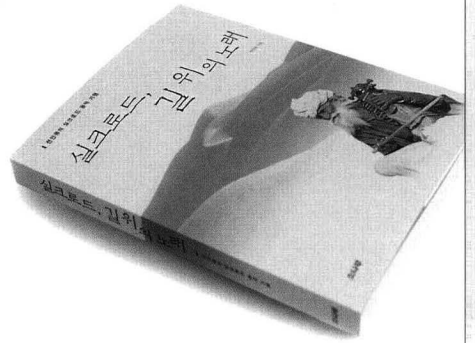
마지막에 실린 종합토론이다. 10개의 강의를 나누어 진행하던 세 저자가 한자리에 모여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리스도교와 도교 대화에서 제기되는 주요 주제와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었다.

‘도교와 그리스도교’라는 주제를 독자들이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강좌’라는 분위기, ‘토론’이라는 현장감을 살리려고 강의내용을 녹취하여 실었다. 강좌에 참가하여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지루하지 않게 하여 독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각 강의와 종합토론 뒤에는 강좌에 참여한 일반인들이 실제로 했던 질문과 그 답변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각 강의는 독립된 주제와 형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주제를 골라 읽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지난해 가을, 2003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철학·종교 분야)로 선정되었다. **☞**



‘열정적인 저자’와 ‘현장성’이 담보하는 실크로드 읽기의 즐거움

● 소나무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전인평 지음 | 소나무 | 400쪽 | 값 18,000원

임중혁 | 소나무출판사 마케팅팀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가장 많이 듣고 불렀던 노래는 <내 안의 그대>였다. 서영은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노랫말에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났나봐~”라는 대목을 들을 때면, 정말 심장이 고장 나는 것 같았다.

우리 출판사는 식구들이 책을 ‘함께’ 만든다. 편집부와 마케팅부가 따로 있지만, 책을 만드는 과정에는 모두가 참여한다. 식구가 적은 닷도 있지만, 정성을 다한 책이 잘 팔린다는 종교 같은 믿음 때문이다. 바로 《실크로드, 길 위의 노래》가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다. 빙 둘러앉아 원고를 고치고, 컨셉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를 쏟아놓을 때마다 <내 안의 그대>를 들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지겹도록 들은 셈이다.

부제가 말하고 있듯이 이 책은 ‘전인평의 실크로드 음악기행’이다. 전인평 선생은 중앙대 음대학장으로 음악이론가이며 <거문고 독주곡 정음후사> 등을 지은 작곡가이기도 하다. 그는 1985년부터 20여 년 동안 틈만 나면 실크로드 음악을 찾아 각 나라를 헤맸다. 그것은 실크로드 음악에 대한 단

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문화가 습합의 과정에서 생성 발전하는 것이라면 음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결국 우리 음악의 원류를 찾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우리 음악은 인도음악으로부터 또 인도음악은 아랍음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생생한 언어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초고가 지금의 꼴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1차로 원고를 모두 읽고 둘러앉은 첫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바로 전 해에 네팔로 여행을 다녀왔던 총무님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행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면서 네팔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다고 했다. 편집장님은 책의 내용이 너무 무거워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나와 다른 식구들은 소재가 그리 대중성이 없는 ‘실크로드’에다 ‘음악’이 겹쳐졌으니, 참으로 책의 운명이 걱정된다고 했다. 누구는 너무 좋고, 누구는 난감하고, 누구는 걱정이 태산이니 참으로 곤란한 지경이었다.

일주일 뒤, 원고를 다시 읽고 몇 가지 준비를 해서 둘러앉았다. 시장조사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고, 편집의 방향은 오리무중이었다. 침묵이 물처럼 잘도 흘렀다. 그때 편집장이 번쩍 눈을 뜨면서 외친다. “그래, 현장성이야!”

그 뒤로는 ‘안 봐도 비디오’다. 무지막지할 정도로 원고를 들어내고, 저자를 피곤할 정도로 괴롭혀 새로 썼으며, 그림도 보충했다. 무겁게만 느껴졌던 원고는 날개를 달았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실크로드’와 ‘음악’은 그리 대중적인 소재가 아니다. 곧잘 팔리는 소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겠다. 하지만 이 소재들이 ‘열정적인 저자’와 ‘현장성’이 뛰어난 ‘기행문’이라는 형식을 만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을 우린 확인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떳떳하게 이 책을 권한다.

오늘,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내 안의 그대’를 듣고 있다. 더 이상 내 심장이 고장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